“나주 에너지밸리에 순풍”…수도권 기업 2327억 투자 유치

나주시, 서울 코엑스서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로드쇼

8개 기업과 투자 협약…민간변전소·씨드머니도 유치

나주시가 수도권 소재 에너지신산업 앵커(선도) 기업 확대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동력원인 ‘에너지밸리(Energy Valley)’ 조성에 순풍이 불고 있다.

나주시는 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통해 2327억원 규모의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밸리는 지난 2014년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주혁신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에너지신산업 집적화 단지를 말한다.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는 올해까지 두 번째로 지역을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확대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준호 한전 부사장,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대 연구부총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원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로드쇼에서 태양광·화학·에너지저장장치(ESS)·스마트모빌리티 등 에너지 분야 기업 8개사와 1027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업은 원광에스엔티, 리월드, 성실에너지, 이노모티브, 경기북부발전, 에코다윈, 타이드, 에프엠팜건설이다.

빛가람에너지, 남양건설, JB자산운용, 더원엔지니어링 등 4개사와는 1300억원 규모의 민간변전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혁신산단 400㎿(메가와트), 노안농공단지 200㎿급 변전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기에 렉스이노베이션, 에이디오트와는 총 7000만원 규모의 씨드머니 유치를 협약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 에너지밸리 투자 여건과 혜택, 지원 정책 등을 직접 설명해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 집적화 된 에너지 관련 산·학·연 기관, 전국 유일의 에너지 4대 특구, 분산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 투자 최적지로서의 나주의 장점을 적극 알렸다.

윤병태 시장은 “에너지수도 나주는 에너지기업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춘 기업 친화도시이자 투자의 최적지”라며 “2년차를 맞은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통해 에너지 기관,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의향 결정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첫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통해 에너지기업 4개사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에서 2327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은 서울 코엑스 투자유치 로드쇼 현장. (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군, 다육가드닝 전국대회 개최

4월 19일~28일…2만 원 이상 구매 고객 차량용 ‘작약’ 향주머니 증정

화순군은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 열리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행사장에서 ‘2024년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 주최·주관하고 화순다육연합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많은 수의 다육 매니아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1차 서류 심사에서 40팀을 선발하였고, 4월 19일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발할 계획이다.

가드닝 테이블(가로 1.5m x 세로 0.9m)에 다육 매니아들이 직접 키워 출품한 작품을 전시한다. 다육의 ▲아름다운 수형 및 건강한 컬러 ▲화분과의 어울림 ▲인테리어 소품 활용 ▲감각적 표현을 통한 나만의 작품 연출 등으로 몸과 마음에 얼 만큼의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심사 평가의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람객들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으로 반려식물 다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를 마련해 운영 및 판매를 진행한다.

특히 화순군 지리적 표시 농산물 ‘작약’으로 만든 차량용 향주머니를 다육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친환경 볍씨 온탕 소독장’ 문 열어

5월17일까지…농업기술센터 및 10개 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진행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술센터에 오는 4월17일부터 5월 17일까지 ‘볍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군은 농업기술센터에 온탕소독장을 마련하고 볍씨 온탕 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0개 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자체 온탕소독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농업인에 볍씨소독을 지원한다.

볍씨소독은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벼잎선충 등 종자 전염성병을 예방하며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음이다.

소독 방법은 우선 탈망기 또는 소금물 정선 등을 통해 충실한 볍씨를 고른 뒤 완전히 건조시킨 볍씨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벼 종자를 뜨거운 물로 소독하는 것이다. 볍씨를 65℃ 물에 7분간(또는 60℃ 물에 10분간) 담근 후 건져내 찬물에 2~30분간 충분히 식히면 완료된다.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볍씨 적정량(10kg이하)을 그물망에 담아 물 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소독시간 동안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환경 재배의 경우 온탕소독 후 추가로 석회유황(22%액)을 50배로 희석하여 24시간 침지처리하면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9%이상 높일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볍씨 온탕소독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과정인 만큼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온탕 소독을 통해 쌀의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탕소독장 이용은 농업기술센터(061-360-8861) 혹은 10개 면사무소(곡성읍 제외) 산업팀으로 전화하면 볍씨 온탕소독 준비사항 등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제23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 성료

구례군은 지난 3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제23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화대전에는 11개국 322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7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될 예정이다.

올해 종합 대상(대통령상)은 김명숙 작가의‘세월을 품은 여행’이 받았다. ‘세월을 품은 여행’은 소중한 만남과 아름다운 자연의 속삭임이 있던 추억의 한 자락을 담아낸 작품이다.

김명숙 작가는 “작은 농원에서 꽃을 키워내며 작품 활동을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며 “압화 대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압화대전위원회 조남훈 위원장은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중국, 독일 등 총 11개국에서 대학교나 압화 협회를 중심으로 훌륭한 작품을 출품했다”며 “대한민국압화대전은 해가 갈수록 작품의 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압화는 자연과 예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며 “올해도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압화 예술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압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장성군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에 3㎾ 태양광 설비(일반모듈)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64%인 342만 원을 보조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9가구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38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는 설비 내용과 면적에 따라 지원액이 상이하다.

태양열·지열·연료전지는 3일, 태양광은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장성=김수권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A&C